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회

일시 | 2018. 2. 7.(수)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노응래,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 입법조사처

주관 **kusf**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

|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2. 7.(수) 14:00 ~ 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 입법조사처
 | 주 관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 주 제 |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회 일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등록	13:30 ~ 14:00	(30분)	등 록	
개회	14:00 ~ 14:15	(15분)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이동섭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좌장	하용용(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발제	14:15 ~ 14:35	(20분)	발제1: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방안 - 이용식(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14:35 ~ 14:55	(20분)	발제2: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특혜 - 정용철(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14:55 ~ 15:40	(45분)	토론1 정희준(동아대학교 교수)	
			토론2 정명채(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토론3 민병천(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장학사)	
			토론4 장봉군(전국체육부(과)장협의회 회장 / 단국대학교 체육부 팀장)	
			토론5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6 송근현(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	
			토론7 최 진(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과장)	
질의응답	15:40 ~ 16:20	(40분)	청중 질의·의견제시 및 답변	
폐회	16:20 ~ 16:30	(10분)	총평 및 마무리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포갑 노웅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16년도 국정감사에서 촛불 혁명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체육학과 부정입학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바 있습니다. 총장을 비롯해 많은 교수들이 가담한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부정 입학은 수백만 입시생과 학부모의 가슴을 멎게 했고, '노력하면 이뤄진다'는 꿈과 희망이 짓밟힌 학생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촛불을 들기도 했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특기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합격자를 내정한 채 입시전형을 진행하는 '사전 스카우트', 특기자와 역량 미달의 선수를 함께 끼워 넣어 입학시키는 '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의 창구로 악용되는 실정입니다.

'페어플레이(Fair play)'라는 스포츠의 기본정신을 침해하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입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은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체육특기자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2016년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은 체육특기생 입학제도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교육부는 2020학년부터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출석 인정의 기준 상한선을 마련하는 등 제2의 정유라, 제2의 장시호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슬로건으로 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체육특기생 대입은 제도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체육특기자 입시를 담당하는 곳도 대학 입학처가 아닌 대학 체육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만 강요당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대학 입학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감독이나 코치가 제시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출전과 진학 등 학생의 진로가 모두 감독과 코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입시비리와 승부조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 노웅래



I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과 체육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72년 도입된 체육특기자 제도는 운동에 자질이 있는 선수에게 상급 학교 진학 특례를 줌으로써 엘리트선수 육성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체육을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가 하면, 지도자들 간 돈거래나 승부조작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각종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 인재 양성 이면에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향방이 ‘공정한 과정’과 ‘평등한 기회’라는 목표에만 치우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획일적인 대회출전 횟수 제한이나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 등은 자칫 숙련이 필요한 종목의 선수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생선수들의 역량 발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엘리트선수 육성’이라는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대입전형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는 엘리트선수 육성과 입시비리 근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며, 균형 있는 시각으로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시의성 있는 공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스포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엘리트체육인 양성을 위해 체육계 관계자 분들과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 이 동 섭



I 축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뜻 깊은 토론회를 열어주신 노웅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과 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장호성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각 분야에서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분야의 눈부신 활약을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 선수들의 수많은 노력의 땀방울은 물론이며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과 따뜻한 도움들이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 1972년에 도입된 체육특기자 제도는 스포츠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를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전스카우트와 입시 비리와 같은 부작용이 끊임없이 야기되면서 순수한 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명목아래 여전히 수많은 문제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문가 분들의 지혜가 모여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스포츠 본연의 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20대 국회에서도 공정한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들 후면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 올림픽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회의장 정 세 균



| 축하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웅래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님, 그리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와 적은 인구를 갖고 있지만, 매년 국제무대에서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유수의 언론이 우리나라를 스포츠 10대 강국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의 근간이 되어준 ‘체육특기자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본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로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입시 비리를 계기로, 이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수술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련된 토론회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체육특기생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폐해를 되돌아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주신 여러분의 총의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 성 엽



| 축하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입니다.

오늘 노웅래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님과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계자와 발제와 토론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가 2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체육특기자와 관련한 토론회의 개최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 동안 엘리트 체육인의 양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였고, 학생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입학에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국제경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체육인의 양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체육특기자가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고, 체육특기자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도외시하고 운동에만 집중하여 발생하는 학력저하와 대학의 입학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사례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제도의 개선은 학생, 학부모, 학교,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 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 내 영



I 축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노웅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포츠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즐기면서 협동심을 배우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교육으로 정부는 체육계 진로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아래 유능하고 당당한 체육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실적 증명 방식을 개선하고, 경기 동영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선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입학 후에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부리내릴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스포츠의 힘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 종 환**



| 축하



바쁘신 일정에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진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노웅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는 여러 교육 정책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로 초·중등 교육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특히, 체육특기자의 입시는 각종 비리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4월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분야가 오늘 정책토론회의 주제인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선발 기준이나 방법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의적 전형을 예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진학을 지원하고 부정 입학 등의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의 시금석이 되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체육특기자 대학 입시를 잘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 상 곤**



I 축하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하며, 체육특기자에 대한 국회 및 정부, 학계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노웅래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972년에 처음 도입된 체육특기자 제도는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스포츠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이면에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미비, (성)폭력과 입시비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각계와 주무부처의 노력으로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체육특기자에게 학습과 진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선발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제를 담은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오늘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을 잘 경청하여 체육특기자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또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대한체육회 회장 이 기 홍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이 시작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 2월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노웅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국회 입법조사처 및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생선수, 학부모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운동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 협의체로서, 2010년 출범 이래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 제도의 도입 이래 체육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우수한 학생선수의 양성에 기여하며 한국 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체육특기자 대입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스포츠의 바른 정책을 선도해온 우리 협의회는 그간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2년,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과 ‘체육특기자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 폐지’를 결의한 바 있으며,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을 발간해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고교에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정보설명회’ 개최 및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선수 및 학부모들이 체육특기자 입시 정보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회」는 공정한 입시 기회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체육특기자 대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전인적 스포츠 리더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7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목 차

발제 1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방안	13
	이용식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발제 2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특혜	21
	정용철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1	정희준 / 동아대학교 교수	29
토론 2	정명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35
토론 3	민병천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장학사	41
토론 4	장봉군 / 전국체육부(과)장협의회 회장, 단국대학교 체육부 팀장	47
토론 5	조인식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53
토론 6	송근현 / 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	59
토론 7	최 진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과장	63

발제 **1**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방안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이용식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방안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교수



CONTENTS

- ◆ 1. 체육특기자 제도의 이해 및 부작용.....●
- ◆ 2.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노력들 및 남은 문제들.....●
- ◆ 3. 체육특기자 대입 경쟁률 제고방안.....●
- ◆ 4. 나가는 말.....●

1-1. 체육특기자 제도의 이해



SPORTSPOLICYSTUDY

1-2. 체육특기자 제도의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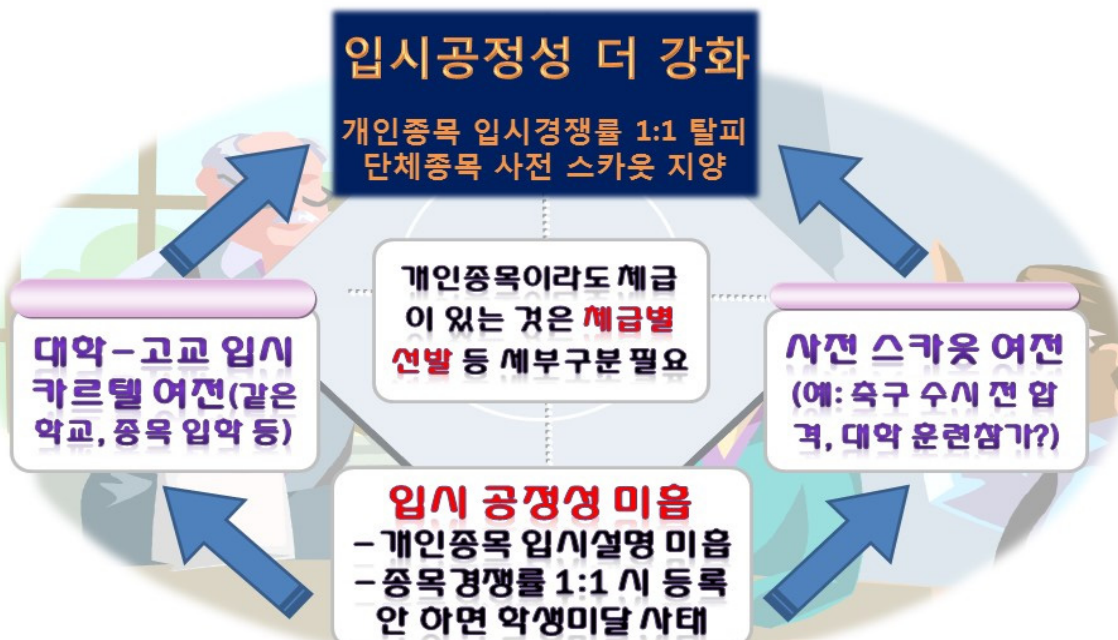
SPORTSPOLICYSTUDY

2-1.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노력들



SPORTSPOLICYSTUDY

2-2. 입시공정성 관련 남은 문제들



SPORTSPOLICYSTUDY

3. 체육특기자 대입 경쟁률 제고방안

고교-대학 입시운영 개선

특기자 고교진학 시스템 개선

- 감독/코치 개인인맥에서 입학실, 체육부, 진학위원회 등에서 학부모, 선수 공식 진학지도 추진
- 대학 입학 전 지도자의 대학지원 관여 배제-문제 있는 지도자 경질 등 추진

특기자 대학입시 시스템 개선

- 체육부가 아닌 대학 입학처의 입학홍보 - 현재 대학은 입학처 아닌 체육부(감독, 코치 등) 활용 홍보(담합 가능성 높음)
- 선수당 최소 2곳 이상 지원하도록 제도 개정
- 개인종목 3위 이내보다는 몇 명 출전 몇위, 순위별 점수화로 지원을 제고(4위도 지원가능)

대입 관계기관 역할 강화

대학스포츠총장협 역할 강화

- 대학스포츠총장협의 대입설명회 확대 - 개인종목도 설명회 포함, 진학/원서지원 지도, 체육부장 등 담당자 설명회
- 고교 3학년 대상 대학지원 설명회, 입시비리 법적 책임 등도 설명-온라인 강좌개발, 보급

1:1 경쟁률 원인분석 및 관계자 처벌강화

- 1:1 경쟁률 대학의 수시접수 후 보고, 교육부/스포츠총장협 점검 - 지원자 지원대학개수 확인, 특정고교 출신여부, 3년 이상 1:1 상황?
- 1:1 학과 또는 종목 체육부장, 입학관리위원회 위원, 고교-대학 종목감독 등 관계자 감사
- 비리 적발 시 교수 징계, 위원 박탈, 감독제명

4. 나가는 말

- 체육특기자 대입 비리는 특정선수의 특례입학이 가장 큰 문제, 짜고 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관건
- 대학 관계자, 고교 종목협회, 고교 3학년 학생 등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 필요**, 듣지 못한 학생은 온라인 강의로 통과 후 대학 신청 가능하게라도 추진 검토
- 최근 축구 등 경쟁률 상승으로 고무적, 향후 안착을 위해 1:1 경쟁률 학교 또는 종목 등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필요
-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 투명화, 실력과 소신에 따른 지원 및 합격률 지향
-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대학, 지도자 등 모두 **정책순응의 전향적인 자세** 필요



발제 **2**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특혜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서강대학교 교수 정용철



체육특기자 제도: 공정한 특혜

장면 1: 2017년 전국체전 특별 세미나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발제를 2017년 전국체전 기념 학술대회 끝자락에 열린 스포츠사회학회 특별세미나에서 만났다. 그 날 오후 발제는 정희준 동아대 교수, 한태룡 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탁민혁 선생이 맡았는데 그 중 두 번째 발제를 맡았던 한태룡 선생의 발표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그리고 불가역적인 해답을 얻었다고 무릎을 쳤다.¹⁾

한태룡의 결론은 단호했다. 발제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해결방안? 지금 상태에서는 체육특기자제도의 폐지 후, 재조직화 뿐이라고 판단된다’ (한태룡, 정유라 사건으로 본 체육특기자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10월 20일, 16쪽, 강조, 밑줄 추가).

이 간결하고 명쾌한 마지막 한 문장에 다다르기 까지 한태룡은 체육특기자 제도의 실제 내용과 성립 당시의 역사/사회적 맥락, 그리고 대안적 해외사례로 일본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세세히 살폈다. 그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지난 반 세기동안²⁾ 한국엘리트체육의 기반이자 선수 조달통로였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과한 체육특기자들의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문화로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봤다. 모든 제도는 특정한 시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므로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0대 남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태동한 제도이다. 그 당시 엘리트체육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우위’, ‘국민의 탈정치화’, ‘국가브랜드 제고’라는 목적을 위한 매우 적절한 기제로 체육특기자 대도는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후 긴 세월동안 체육특기자 제도는 큰 변화가 없이 세월의 풍파에 덮고 덮였다. 한태룡은 그래서 체육특기자 제도를 ‘낡았다’라고 평가한다. 낡음의 이유로

-
- 1) 너무 흥분한 나머지 스포츠심리학자라는 필자의 소속을 잠시 망각해 연거푸 3번의 질문을 던지고 결국 사회자로부터 제지당했다. 이렇게 명확한 결론(폐지 후 재조직화)을 앞에 두고 왜 머뭇거리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아직도 이런 정치적인 주장은 학회에서 하지 말고 국회에 가서 하시라던 소장학자의 목소리가 쟁쟁하다.
 - 2) 1968년 3월 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 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통합되는 데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 기점으로 보면 올해로 딱 50년이다. 1970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 5320호인 체육행정기구 확대 개편, 1972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이 학업이 아닌 경기실적을 위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대학특례입학) 제도가 시행된다.

네 가지 근거, 대학의 변화, 북한과의 체제격차 심화, 국가브랜드의 격상, 그리고 국민 탈정치화의 구태성을 들었다. 무엇보다 소 팔아 대학 가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위상차이가 확연하다. 대학진학률은 80%에 육박하고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

현 체육특기자 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얻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교육을 사실상 방기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탁월한 지적이다. 이미 제 5공화국 시절부터 ‘운동선수 학력저하’, ‘특기자 학교 내 이질집단화’, ‘특기자 사회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고 진단한다. 2010년에 발표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은 비교적 최근 발표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오늘 다뤄지는 최저학력제, 학력증진 프로그램지원 등과 같은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학계나 교육현장에서도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한태룡은 이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차원(예를 들면 체육교육 과정의 파행적 운영), 학원스포츠현장차원(예,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그리고 학생선수 개인차원(예, 학습권 박탈, 중도탈락, 인권)을 들었는데 운동선수 학습권과 같이 최근 급속히 개선되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정유라 사태에서 온 국민이 경험했듯이 선수선발과 관련된 진학 비리의 근절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발제문의 후반부 대부분은 체육특기자 제도의 해외사례로 할애되었다. 주로 일본의 고등학교체육연맹(고체련)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체육특기자들이 어떻게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보장받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된다. 한국의 현행 대학특기자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차이는 대입 진학과정에서 일본의 학생선수들이 제출해야만 하는 소논문이다. 우리로 말하면 논술에 해당하는 전형방식으로 모든 체육특기생 추천입시에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의 축구명문학교의 경우 4개의 디비전으로 나뉘어 모든 디비전을 다 참가한다. 이 중 가장 수준이 높은 운동부는 추천제 입학자(체육 특기생)로만 구성이 되어있는 팀이고 그 외에는 추천제 입학자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학축구부의 인원이 200명에 이르기도 한다. 이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특기자제도의 핵심이다. 극소수의 학생이 선수가 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50% 이상의 학생들이 고교시절 매우 강도 높은 스포츠경험을 운동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보편성이, 다시 말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운동선수는 더 이상 특별한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를 실행하는 조직인 일본의 고체련은 33개 종목을 관할하는 전문부를 두어 각 스포츠 종목의 중고연맹을 포섭하고 있다. 개별 종목의 연맹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고체련 산하의 전문부에 편입되어 있는 형태다. 여기에 한국의 대한체육회와 같은 단체인 일본체육협회는 국민체육대회(우리나라의 전국체전과 비슷하다)를 개최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로부터 시발된 작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좀 더 크게는 학교체육 전반의 개혁을 위한 모델로 활용가능하다. 즉 가칭 중고교 학교체육연맹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운동을 현재의 엘리트 체육특기생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하는 일반학생들을 대폭 늘려(이미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더 이상 특기생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장면 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국가대표

이 발제문이 발표되는 2월 7일은 역사적인 평창올림픽 개막이 이를 앞두고 있을 것이다. 올림픽 직전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 논의를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먼저 남북한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전격적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되고 남북실무회담과 IOC 중재를 통해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과의 단일팀이 성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언론매체는 북한 선수들의 참가로 남한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프레임으로 평화를 향한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다독였는데 이 때 선수들은 우리가 희생하는 대신 얻는 것을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들었다. 원하는 게 뭐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물음에 선수들은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의 창단과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대입특기자 특례입학을 요구했다. 며칠 후 수원시청은 실업팀 창단을 발표한다. 첫 번째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두 번째 요구의 관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여럿이다. 비인기종목인 여자아이스하키가 운동부로 있는 대학이 현재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운동부가 있어야 대학이 선수를 뽑을 텐데 당장 팀을 구성할 정도의 선수가 있지도 않은 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남북한 단일팀 논란의 한 가운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체육특기자 입학에 요구했다는 점은 오늘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체육특기자 선수들이 젊어져야 할 국가를 위한 희생과 대학입시라는 개인적 욕망의 충돌, 그리고 이 충돌의 한 가운데 있는 공정성(과 그 밑바닥에 있는 특혜)을 들여다보게 한다.

심석희 선수는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간판이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침착한 경기를 운영으로 메달을 따내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여자아이스 하키팀 선수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대통령이 직접 진천을 방문한 바로 그 날 심석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후에 그가 선수촌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 이유가 코치의 구타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심석희를 때린 대표팀 코치는 초등학교 때 어린 심석희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탁해 운동선수의 길을 열어준 은인이라는 기사도 함께 회자된다. 세계적인 선수도 손찌검을 당하는 올림픽 주최국이라니? 구타를 한 코치의 영구제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심석희 선수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최대 수혜자이자 피해자이다³⁾.

같은 시기에 팀추월 1500미터에 출전예정이던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에 못나가게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이 국제연맹의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엉뚱하게도 러시아 선수 두 명이 도핑문제로 최종 탈락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평창에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된다. 억울함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면서 작심한 듯 협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낸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체육특기자 제도의 폐해가 목격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걸(올림픽) 보면서 참아왔는데’, ‘그동안 협회가 해준 게 뭐냐?’,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국가를 위해 더 이상 뛰고 싶지 않다.’라는 언어 속에 담겨있는 함의. 물론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규정을 잘못 파악한 협회의 잘못이 더 크지만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만 보면서 참고 오로지 스케이트만 탄 선수가 안쓰럽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규정은 영문규정 달랑 한 줄이다. 복잡한 법조문도 아닌 규정 한 줄을 10년을 별리 출전하려는 중요한 대회에 나가지 못할 문제에 대해 체육특기생인 노선영 선수는 눈물로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다.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국가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가 제공된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국가가 운동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올림픽에 못나가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그가 오랫동안 받아왔던 혜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늘 그래왔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운동만 해도 대학가고(한국체육대학을 나왔다) 먹고 살(강원도청 소속이다) 수 있는 건 체육특기자제도라는 매우 특이한, 그리고 한태룡의 주장대로 너무 낡아 용도폐기가 임박한 제도 때문이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빚어낸

3) 같은 시기에 테니스 선수 정현은 호주오픈에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조코비치를 꺾고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심석희와 정현은 한국체육대학(1977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요람이다)을 같은 해 입학해 나란히 입학생 대표로 선서를 했다.

관성이 강산이 네 번이 바뀌는 동안 여전히 운동 이외에는 철저하게 무력한 개인을 양산해 온 것이다.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의 최근 추세

발제를 의뢰받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해 최근 가장 단호한 주장을 했던 한태룡 선배에게 전화를 했다. 없어져야 할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다. 평소 시니컬한 선배는 내 예상과는 달리 대학총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하면서 최근 대교협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업데이트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다음은 그 조언에 따른 이번 발제의 최소한의 의미부여다.

최근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의 변화 경향은 한마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체육계 정상화 정책을 이루기 위해 대입전형방법에 다양성과, 공정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다. 이미 2014년부터 과거 대한체육회에서 1인 1매 발급하던 체육특기자 제출서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4년부터 이어지던 오래된 관행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2018년 대교협 대학입학 전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형방법에서 학습권 보장제 도입에 따른 학생부 반영의 권장, 면접반영비율의 최소화와 종목별 공동실기 권장, 그리고 경기실적에서 단체종목 내 개인 경기실적 반영비율을 확대하였다.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자격 기준을 권장하고 종목별 세부자격 심사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요내용으로는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한 객관적 요소 위주로 평가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요소의 비율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 하고 반영비율과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실기, 면접 평가 시 타대학 교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참석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익명성과 무작위성을 강화 하고 시행에 대한 이행수준을 ‘권장’에서 ‘명시해야 함’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는 정유라 사태와 같은 체육계 입시비리를 근절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잘못된 관행과 폐습과의 결별을 뜻한다.

공정한 특혜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앞에서 밝혔듯이 이 발제문은 이미 석 달 전 한태룡 선생의 발표를 통해 체육특기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상정하고 출발했다. 발제의 마지막에 다시 체육특기자 제도라고 하는 특혜가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대학입시라고 하는 욕망을 위해 비리의 온상이었던 과거를 벗어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화하고 있음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의 확대 또는 확보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제도는 근본적으로 특정 스포츠에 종사는 소수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남을 것이다. 여전히 평창을 앞두고 우리가 목격한 것과 비슷한 국가를 공적 희생의 강요와 선수 개인의 사적 욕망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바뀔 때가 됐다. 이걸 끊어야 한다.

토론 **1**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

동아대학교 교수 정희준



토론문

“타락한 현대미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절명케 해야 한다.”

이브 미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론가

“저 따위 수준이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는 소리를 듣는 한국의 스포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스포츠에서 자주 목격되는 부패와 비리와 협잡과 폭력의 뿌리는 모두 학원 스포츠에서 비롯된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시비리, 폭행, 혹사, 뇌물, 횡령 범벅인 학원 스포츠에서 운동을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이를 몸소 직접 실행에 옮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이 너무나 태연하고도 당당하게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다. 이러한 문제가 밝혀져도 역시 ‘한 통 속’인 협회가 은폐하거나 숨방망이 처벌을 하는 바람에 이들 지도자나 협회 임원들은 죄의식조차 없다. “재수 없게 걸렸다”며 다음부터는 걸리지 말아야지 다짐할 뿐이다.

부패와 비리로 뒤엉킨 한국 스포츠의 뿌리가 학원스포츠라면 그 핵은 바로 대학입학 체육특기자전형제도이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용철은 한태룡의 주장을 인용하며 “체육특기자제도의 폐지 후, 재조직화 뿐”이라고 재차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한태룡의 설명대로 1972년 ‘남한’의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 국민의 탈정치화, 국가브랜드 제고의 목적으로 오직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체육특기자제도는 국가 주도 엘리트 스포츠의 선수 조달통로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체육특기자제도는 선수와 학부모를 지배하는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투영된 ‘욕망의 폭주기관차’일 뿐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물론 현장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고 명분이 그럴 듯해도 현장의 상황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행정의 폭력’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운동만 하던 학생선수들에게 학업 참여 준수를 강제한다면 (지도자들이 교사한) 학부모들로부터 “운동만 하기도 힘든데 이제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나”는 원성이 즉각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특기자제도는 폐기 외엔 답이 없다. 지금의 학원스포츠는 존재 자체가 비리이자 착취다. 학원스포츠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가해자(지도자), 희생자(학생), 방관자(학부모)만 존재하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이다. 메달 따는 것 외에 사회로부터의

관심도 받지 못한 다. 언론에 이따금 등장하는 범죄 사실로만 존재감을 입증하는, 그런 처참한 수준이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한국의 스포츠는 사실상 협회와 감독만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스포츠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어린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승부조작을 밥 먹듯 하고 엄연한 학생에게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하는 스포츠는 이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그나마 조폭은 어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비해 스포츠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고 혹사시키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한다. 조폭보다 더 저질인 게 한국의 스포츠다. 구성원이 가해자와 희생자로 양분되고, 희생자가 나중에 커서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사회 조직은 해체되어야 한다.

정용철은 최근의 변화에 주목한다.

1. (2018년 대교협 대학입학 전형) 전형방법에서 학습권 보장제 도입에 따른 학생부 반영의 권장, 면접반영비율의 최소화와 종목별 공동실기 권장, 그리고 경기실적에서 단체종목 내 개인 경기실적 반영비율 확대
2. 자격기준에서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자격 기준을 권장 및 종목별 세부자격 심사기준 모집요강에 명시
3. (2019년)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해 입학 취소 근거 규정 학칙 반영 및 정성적 평가요소의 비율 최소화
4. 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 모집요강에 명시 권장
5. (2020년) 학생부 반영 의무화, 반영비율과 기준 모집요강에 명시, 실기와 면접 평가 시 타 대학 교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평가위원 참석
6.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 확보 위한 익명성과 무작위성 강화, 그리고 시행에 대한 이행수준을 '권장'에서 '명시해야 함'으로 강화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 외에 학원스포츠 자체의 변화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첫째, 대입 특기자 전형에서 내신성적 반영 (30% 이상?) 및 수능점수 하한제(8등급 이상?)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대학 뿐 아니라 학원스포츠 전반에 최저학력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적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험 출전을 제한하거나 훈련 참여를 불허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주요 종목 대입 경쟁률이 1대1이라는 사실상의 비리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학생선수 대상 대입 수시 전형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넷째, 이용식의 제안처럼 대학의 입학 심사 담당을 기존 체육부, 체육위원회에서 입학처로 이관하여 대학 감독들은 입학사정에서 배제하고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입시위원회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대학특기자제도가 지금과 같은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된 이유는 초중고 학원스포츠의 병폐 때문이다. 대학특기자제도의 문제는 바로 학원스포츠 문제의 연장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특기자제도의 온전하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원스포츠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1) 학생선수들의 수업권 보장, 2) 운동시간 및 훈련일수 제한, 3) 학원체육 지도자의 폭력행위와 승부조작 엄단 등의 시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르는 자의 경우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체육특기자제도는 정용철의 표현대로 “특정 스포츠에 종사하는 소수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다. 즉 ‘특혜’인 것이다. 따라서 특혜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이 제도는 하루 빨리 혁파되어야 한다. 협회와 감독의 이권을 위해 어린 학생이 희생되는 스포츠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리고 극소수의 어린 학생들을 격리시켜 ‘검투사’로 기르고 결국 어른이 되어서는 갈 곳이 없는 ‘사회적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지금의 시스템도 해체되어야 마땅하다.¹⁾ 수업 참여도 기본이지만 합숙도 없애야 하고 또래 친구들과 동일한 성장기를 거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운동한 것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무시도 사라질 수 있다. 체육회나 체육인들이 주구장천 떠드는 소리가 ‘스포츠 선진국’인데 이러한 ‘후진국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는가.

1) 예를 들어 여자 축구 선수는 초중고대 및 성인 포함 총 1629명(2017년)이고, 그 중 대학 및 성인선수는 500명이 채 안 된다. 2014년 FIFA의 성인여자축구선수 현황을 보면 독일이 65만, 미국이 10만 명이 넘는다. 성인만! 또 작년 7월, 몬트리올세계체조선수권 대표 선발전에 도전한 대한민국 여자선수는 달랑 5명이었다.

토론 2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정명채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 방향을 위한 논의

1

들어가며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서 우수한 선수의 상급학교 진학기회를 보장하고, 초중고의 운동부를 활성화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기 실적과 면접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공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단위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정유라 사건을 포함한 일부 대학의 부정입학 사례 등으로 인해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교협에서는 입학기준 2년 6개월 이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부정입학 사례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정당한 절차와 본인의 노력을 통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을 입시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우리나라 체육분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2

체육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내용

- 현재, 대학입학전형은 3년 예고제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일(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 이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문체부 및 교육부 등이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2016.3.15.)을 반영하여 2019 학년도에는 종목별(단체경기)과 포지션별(개인경기)로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권장하였고, 2020학년도에 이를 의무화하였음. 그리고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또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10학년도 이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교육부 발표)

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지난 199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개선해왔음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

- 1998학년도 / 예체능계 입시부정 방지 대책[대학 감독의 결정 권한을 배제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화, 사전스카웃 금지, '00학년도부터 동일계열 모집단위만 입학 허용]
- 2012학년도 / 대입 특별전형 개선 방안[대한체육회 지원서 발급 폐지 요청]
- 2014학년도 /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 방안[정성적 평가요소인 면접 비율 축소, 정량적·객관적 공통실기(체력 측정 등) 확대, 단체종목에서 개인별 기록 지표 개발 관리(문체부), 대회등급 설정(문체부)]
- 2015학년도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선[일반사항에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특전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 전형요소에 수능성적 추가 및 개인 경기실적 반영 강조]
- 2016학년도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선[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면접반영비율을 최소화하고,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내신 활용 및 단체종목의 경우 '종목별 공통실기' 권장(문체부 의견 반영)]
- 2017학년도 /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체계 개선(문체부), 주요 경기 동영상 제공 시범사업 및 확대로 평가 공정성 강화(문체부), 입학비리 발생 대학 운동부 대회(대한체육회 산하 및 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대회) 출전정지(문체부), 입학비리 주도 지도자 및 학생선수 영구제명(아마추어, 프로 불문), 입학비리 학생선수 입학 취소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 입학비리 연루 대학 10% 이내 모집정지·지원예산 삭감,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 2018학년도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선[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시행에 따라 학생부 반영 권장]
- 2019학년도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선[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권장함,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며,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 및 비율은 최소화함(면접 등 정성적 평가 시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위원 참여를 필수화하고, 실기 운영 시 종목별 공통실기를 권장함),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야함]
- 2020학년도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선[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 체육특기자 전형의 평가 공정성 확보 필요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체육특기자 전형방법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
 -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시행(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따라 일정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의무(2020학년도) 사항인 실기 및 면접 평가에서 1명 이상의 외부위원 참여
- 체육특기자 전형에서의 지원자격 명확성 강화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 중 권장사항을 필수사항으로 변경함.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재학 당시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설정함으로 변경
- 체육특기자 지원자의 경기실적 관리 체계화 필요
 -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서 경기실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각 경기단체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기실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부정입학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실현
 -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입학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칙을 통해서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부정입학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대학도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부정입학이 발생할 경우 함께 제재를 받는 조치 마련
- 특정종목의 선수 양성 구조에 대한 보완 필요
 - 대학 자체의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특정종목의 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입학부터 학사관리까지 선수 육성에 따른 긍정적인 취지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선발(입학), 육성(학사관리 및 졸업규정)에 대해 대학자체에서도 선발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체육특기자 전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입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공정한 제도 운영
- 체육특기자 전형의 개선을 위해서 대교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체육특기자 전형과 관련하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하고,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 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
-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특기자 전형의 운영을 위한 제안
 - 체육특기자 전형은 운동선수 선발이라기보다는 학생 선발제도라는 인식이 필요
 - 학업역량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대학 입학 후 학업에 적응하도록 유도
 - 선발에 있어서 전형의 객관성, 구체성, 투명성이 제고되어 전형의 공정성 강화
 - 가맹 종목단체의 구체적 대회정보를 대한체육회가 취합하여 대학에 제공
 - 대입정보포털“어디가”를 통한 특기자 대학입학정보 검색 기능 운영

〈참고 자료〉

1. 최근 4년간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변화(시행계획 보도자료 기준)

모집분야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어학	1,789	1,474	1,406	847
음악/미술/무용	880	844	917	742
체육	2,480(30%)	2,332(31%)	2,198(30%)	2,258(36%)
이 외	3,192	2,919	2,732	2,506
소계	8,341	7,569	7,253	6,353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반영 내용

학년도	주요 반영 내용
2014	- 체육특기자 전형 반영 내용 명시 시작
2018	- 학생부 반영 권장 - 면접반영비율 최소화 및 종목별 공통실기 권장
2019	- 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권장 -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 위주로 평가 -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 및 비율 최소화
2020	- 학생부 반영 의무화(출결 포함) - 종목별(개인), 포지션별(단체)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의무화 - 외부 평가위원 필수 참여(1인 이상)

토론 3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장학사 민병천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I

들어가는 말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 중·고교 체육특기자 무시험 특별전형 제도 신설 및 1973년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국가주도 한국 엘리트체육의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 시 시험성적보다는 선수들의 입상실적만으로 진학할 수 있게 한 제도로써 그 동안 대한민국이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 1972 : 중·고교 체육특기자 무시험 특별전형 제도 신설
- 1973 :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
- 1997 :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대학자율화,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 발표
- 2000 : 체육특기자 동일계열 지원만 허용/ 타 계열 입학 및 전환 금지 시행
- 2012 : 대입특별전형 개선 방안 수립 및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설정
- 2014 : 체육특기자 지원서 1인 1매 제도 폐지
- 2016 :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 종합대책 발표
- 2017 :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그러나 체육특기자 제도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시 하면서 입상(경기)실적을 얻기 위해서 학생선수들이 학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에만 치중하고, 많은 대회출전 등으로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습능력이나, 미래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

학교 스포츠 활동은 최근까지 ‘학생선수 육성’의 관점에서 발전해왔으며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성과는 ‘승리지상주의’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표1)을 발표하였으며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개선도 2021학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구분	주요 내용	후속조치
학사관리 강화	• 정규 수업이수 의무화	1) 학교 내 체육시설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정규수업 이수 불가할 경우 교육청 보고 의무화 2) 정규 수업 이수 후 종목별 훈련참가를 강조하여 각급 학교까지 안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하여 주기적 점검 및 관리·감독 3) 학생선수 학력 향상을 위해 담임교사와 과목별교사의 협조 받아, 개별 학생선수의 학습 질 관리 강화책 마련 4)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점검 실시
	•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강화	• 현행 담임교사가 학생선수 출결상황을 나이스 상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례 발생 - 체육특기자가 학교장 허가 후 대회(훈련)에 참가할 경우 담임교사는 나이스 상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하도록 강조하여 각급학교에 안내
	•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 의무화	• 2021학년도(현재 초6 학년) 적용에 따른 사전예고 및 행정조치와 학부모,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실시
대회출전 관리 강화	•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폐지	1) 수업결손이 없는 주말, 공휴일, 방과 후 전국대회는 참가횟수에서 제외(4.10이후 즉시 시행) 2) 2018학년도부터 학교장이 ‘출석인정결석’ 허가할 경우 체육특기자가 대회(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일수는 수업일수 3분의 1까지 허용 가능함을 각급학교에 안내 후 주기적 점검 실시 ※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2017학년도까지 유지 하되, 방과 후, 주말, 공휴일 대회 참가는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에서 제외
	• 학교운동부 육성(특기)학교 승인 절차 강화	1)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과 같이 해당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는 경우 학교운동부 창단은 금지 2) 학교 내에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비 되지 않았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불허
진로· 진학교육 지원 강화	• 체육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다양화	1) 체육고등학교에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 (예) 울산스포츠과학고 2) 체육고등학교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TF팀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체육특기자 진로 진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육특기자들에게 체육계열 진로교육(체육중점학급 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 주관 진로교육 행사 등 개최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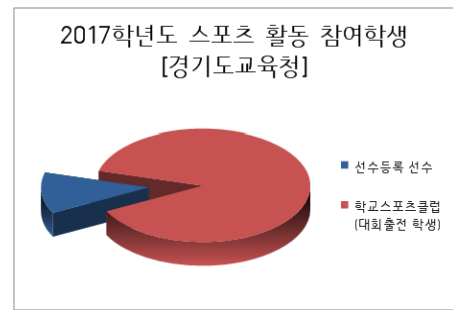
학교스포츠 활동의 정상화

중·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은 체육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 활동(동아리활동 등), 학교운동부(특기교육활동), G-스포츠 클럽(지역사회 협력) 등으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학년도 경기교육청 스포츠 활동 운영현황은 학교스포츠클럽(동아리 활동 등) 참여한 학생은 109,281명이며, 선수 등록 후 활동하는 학생선수(학교운동부, 개인 활동) 14,584명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는 학생의 13%에 미치지 않는다.

[작성기준:2017.3월]

급별	학생선수(선수등록)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출전 학생)
	학교운동부	개인활동	소계	
초	2,786	2,039	4,825 (10%)	48,393
중	4,184	750	4,934 (13%)	37,504
고	3,798	1,027	4,825 (20%)	23,384
합계	10,768	3,816	14,584 (13%)	109,281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서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 선수” + “운동하는 학생”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중·고입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 성적(최저학력제) 반영 의무화 둘째, 학생선수 중심의 지원제도 개선 셋째, 경기실적 위주의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 등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개선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Ⅳ

나가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질적 성장을 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획기적 개선으로 통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학생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체육대회 개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 생활, 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단계 도약해야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체육교육을 위해서 한 아이 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토론 **4**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

전국체육부(과)장협의회 회장 / 단국대학교 체육부 팀장 **장봉군**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회

현행

1. 주관적 평가요소 축소

- 가. 면접 반영비율 감소
- 나. 전문실기 평가 감소
- 다. 내신 반영비율 증대

2. 수시 최대 6개 대학 지원

- 가. 지원 경쟁률 향상 : 2018학년도 단국대 수시 체육특기자 경쟁률 3.94:1
- 나. 대학진학의 선택권 변화 : 고교(대학) 지도자→학생선수, 학부모
- 다. 종목별(세부종목별) 포지션별(체급별) 선발인원 명시
- 라. 육성 구기종목 경쟁률(단국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종목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비고
축구(남)	9	47	5.2:1	예비순위 합격자 다수 학부모 관심
농구(남)	7	22	3.1:1	
야구(남)	7	75	10.7:1	
럭비(남)	7	45	6.4:1	
계	30	189	6.3:1	

- 마. 비육성 구기종목 경쟁률(단국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종목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비고
축구(여)	9	12	1.3:1	여자선수 감소 학부모 무관심
농구(여)	5	5	1:1	
배구(여)	3	5	1.7:1	
소프트볼(여)	4	6	1.5:1	
계	21	28	1.3:1	

바. 육성 개인종목 경쟁률(단국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종목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비고
씨름(남)	3	3	1:1	비인기종목 선수 감소 학부모 무관심
빙상(남)	3	11	3.7:1	
스키(남)	2	4	2:1	
조정(남)	2	2	1:1	
계	10	20	2:1	

3. 입시비리 제재 방안 확대

- 가. 입시비리 지도자 영구제명
- 나. 해당학생 입학취소
- 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지원금 2년간 전액삭감

사회변화

1. 축구,야구외 선수수 감소(인구감소)
2. 대학내 운동부 입지 축소
 - 예산삭감, 장학생 축소, 인원·종목 축소,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3. 경기성적 보다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추구(학습권 보장)

개선방안

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역할강화(지도자 직무교육)
2. 입시비리 관련자 징계강화 및 실행(실태확인)
3. 입시설명회 강화 및 의무참관제 도입(해당 지역의 선수,지도자)
4. 체육비리 신고센터 설치(입시설명회시 공개)
5. 기타

발제자 의견에 이의제기

- 2-2 입시공정성 관련 남은 문제들
(사전 스카웃 여전 : 축구 수시 전 합격, 대학훈련 참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사하여 대학에 통보하자)
- 3. 체육특기자 대입 경쟁률 제고방안(1:1경쟁률 원인분석 및 관계자 처벌강화)
(관련자 감사 : 6개대학 지원하고 인위적으로 지원 막을 방법없는데 단지 1:1이라 감사?)

토론 5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인식



토론문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해주신 이용식 교수님과 정용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노웅래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님께도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배경과 대학입학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해주셨습니다. 토론문은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서론

두 분의 발제자께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연혁과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체육특기자 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대학, 지도자 등 당사자 모두가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께서 체육특기자 제도가 너무 낡아서 용도폐기가 임박한 제도라는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따른 대학입학은 학생, 학부모, 지도자, 대학 등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이 많을수록 대학 진학에 유리하며, 지도자는 학생들의 경기 입상과 함께 대학의 진학률이 높으면 실력이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 보다는 운동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점이 체육특기자 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²⁾ 대학은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하여 경기력이 우수하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체육특기자를 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입학은 운동에만 몰두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대학 입학을 위한 경기실적 조작과 공정하지 않은 선발 과정, 불법 사전스카우트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계 부처도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학력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학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관련 규정

2) 신승호,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대학교육』, Vol 197, 2017, p.63.

대학의 학생선발 관련 규정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4조는 학생의 선발방법, 동법 시행령 제34조는 입학전형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학생선수의 학력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1조는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계된 특별전형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관련 법령에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전형은 일반전형과 비교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과정과 절차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학이 공정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도록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과 향후 진로 등의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조직에 지원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입법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체육특기자를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은 학생, 학부모, 지도자, 대학,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관계 부처 등 여러 당사자들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해주신 발제자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이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의 모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6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

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토론 **7**

체육특기자 대입 제도 개선 토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과장 최 진







